이호철(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차 구술

1. **구술자**: 이호철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2월 7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대회의실
6. **구술분량**: 05분 3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6월 항쟁의 야전사령관'으로서 면모와 활동

구술자 : 근데 유인물[1]을 찍어요, 찍는데. 거기를 인제 비밀인쇄소로 썼는데. 경찰은 알았는지, 주보 찍는 데에요. 소위 카톨릭 주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통이 안 났어요. 유(6)월 항쟁 내내 주로 거기서 찍었는데. 이제 십(10)만부를 찍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만한 뭉치 스무 개에요. 우린 차도 없고, 차 운전할 줄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 변호사님 차도 갖고 있고 운전도 하시니까 '배달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제가 인쇄를 거의 십(10)만부, 몇 만부 할 때 되면 거의 노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새벽 한, 노 변호사님 주무시다 나와야 되니까 새벽 한 네 시나 다섯 시쯤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걸 같이 싣고 아까 말했던 몇 군데 각 대학 앞에다 이런 데를 떨어뜨려주는 운전기사를 하신 거예요. 노 변호사님이. 그거를 몇 번을 했죠.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사모님이 같이 나오셨더라고. '운전은 내가 더 잘한다' 이래갖고. 사모님이 나와 가지고, 그때는 구속되기 전이었죠.[2] 어찌나 미안 턴지.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유인물은 배달을 해야 되고. 찍어도 돈도 문제고, 찍는 것도 문제고, 배달도 문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모님 나오셨더라고, 같이. 아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하게 배달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노 변호사님은 자기 돈을 낼 뿐만 아니라, 유인물을 찍는데 자기 돈을 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호사들 내지는 동기들한테도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돈 좀 도(줘)' 이렇게. 자기가 쓴 게

1)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에서 활동하며 제작한 대국민 홍보물을 말함.
2)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 이석규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1987년 9월 '제3자 개입' '장례식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말함.

아니라, 유인물 찍을 돈을 만들려고. 어쨌든 부민협 내지는 국민운동본부[3]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당시에 우리 월급 한 십(10)만원 받았나? 육(6)만원 받았나? 기억도 안 나는데 차비밖에 안 되는 거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그때 저는 노 변호사님을 주로 만나기도 하고 한밤중에 유인물이나 돌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안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돈을 조달해주고 유인물을 같이 배달하고. 그 당시로서는 인제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거기다 시국사건, 노동사건 다 맡아서 하시지. 그러니까 뭐 팔칠(87)년에 있어서는 직접 길거리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것은 학생들이었다면 사실상 국민운동본부 내에서는 야전사령관 맞죠. 실질적으로.

같이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신부님, 목사님, 변호사, 작가, 이런 분들이었죠. 교수님들은 별로 안하셨던 것 같고, 부산시민협의회든 국민운동본부이든. 이십(20)여 명의 어른들이 주로 움직이셨는데, 움직였다기보다는 상임운영위원회 하면은 열 명 안팎 나오기도 하고, 열 한 댓 명 주로 나오는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행동적이었어요. 가장 헌신적이었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지원을 많이 했고. 본인의 변호사 업무로서도 많이 했고, 노동사건과 시국사건을 거의 다 했고. 강연이나 길거리에서의 부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죠, 팔칠(87)년 유(6)월 항쟁 과정에서.

그게 노무현 변호사님을 소위 유(6)월 항쟁의 야전사령관, 그 구호가 붙었다기보다는 그거는 팔십팔(88)년 총선할 때 우리가 만든 내용이고. 야전사령관 이런 얘기는 안했지만 '노변', '노변' 하면 이미 팔칠(87)년에는 학생 쪽이나 이쪽에서는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깐 부산, 경남, 울산 이쪽에는 유명했었죠. 뭐, 노동사건 생기면 다 그 당시에는 노조도 없을 때니까 노동 상담하러 오면, 산재 상담하러 오면 전부 노 변호사님 사무실에 대부분 다 왔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노 변호사님, 문 변호사님[4]이 아마 나누어서 했어야 될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안기부 쪽에서도 검찰에서도 전부 다, 너무나 부산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죠. 그래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 되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싸워버리니까, 법정에서도. 법조계에서도 한편으로는 운동권 변호사라고 소문이 다 나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건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하여튼 그랬죠.

---

3) 부민협은 부산민주시민협의회, 국민운동본부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를 말함.
4) 문재인 변호사를 말함.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77. - 1981.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1982.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회부장, 홍보부장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홍보부장

1989.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

2003.12 - 2004.0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2005.02 - 2005.04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4 - 2005.08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8 - 2007.12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2007.12 - 2008.0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2012년 현재)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당시 변론을 맡은 노무현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87년 6월 항쟁 전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등에서 '노변'과 함께 활동했으며 1988년과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과정에 참여했다.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고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생태농업, 마을 가꾸기 등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보좌했다.